

제3장

표준화 비전

제1절 표준화 환경변화

18세기 산업혁명 초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표준은 19세기에 '특정 방법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되어,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측면만이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OECD를 비롯한 많은 국가 및 관련기구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즉 '비용감소, 대량생산, 정확성, 완전성, 또는 품질/성능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인정된 기준의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불기 시작한 통신사업의 민영화, 개방화, 세계화는 다양한 망의 등장을 현실화하고 있고 통신의 개인화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의 변장을 가져오고 있어서 상호접속성 및 호환성 확보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급격한 기술발전과 디지털화는 기술의 고도화, 세분화 및 통신, 컴퓨터, 방송, 가전분야 등의 융합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출현으로 표준화작업이 증대되고 있고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 및 제품 개발 측면을 보면 제조업자는 다양한 고객요구에 부응하여 신제품을 싸게, 빨리 시장에 제공하여야 하며, 시장접근 방식의 다양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시장 중심의 표준화와 표준화 과정 중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WTO체제 내에서는 시장개방가속화 및 無국경화, 다원화된 표준화 참여자 등으로 인해 표준화과정의 공개성, 공정성 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이동통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한정된 주파수 스펙트럼 및 위성궤도 등의 유한자원 확보에 각국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기술 및 제품개발과는 별개의 활동영역으로 인식되던 표준화가 현재는 세계 우수 기업들이

기술, 제품개발과 밀접히 관련된 핵심 활동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개발의 분업화 또는 이업종간의 전략적 협력개발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멀티벤더 환경 하에의 시장경쟁력 있는 기술 및 제품개발에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기술, 제품개발의 방향을 잡아주는 선행 표준화활동 등을 통해 시장접근형 표준화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기술과 제품개발 표준화활동과 밀접히 연계됨으로써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技標不二' 양상이 목하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간 중심의 ITU 표준화활동이 주류이고 ITU에서 발간되는 ITU권고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졌으며, 통신사업자 요구중심의 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수동적 표준화활동이 대세였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시장, 제조업체 중심의 사실상(de facto)표준이 강세를 얻고 있으며 공식(de jure)표준들은 열세에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다원화된 표준화기구 및 체계로 인해 이들간의 표준화협력 활동과 조화 노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구간의 경쟁활동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 패러다임 또한 선도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강력히 추진하며 기술혁신 주도, 시장 선점 및 확대의 수단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중심으로 최근 정보통신표준화분야에서의 특징적인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종전에는 공식적인 표준화 기구가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여 왔으나 이제는 중요한 기술들에 관한 협의 등 기술표준화 초기단계는 대부분 포럼 등 사실상의 표준화 추진 기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식표준화 과정이 특성상 공식성이나 책임성 및 구속력은 강하지만 반면에 효율성이나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반영에는 그 만큼 약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국내에도 사실표준화기구에 해당하는 전략 포럼들이 수적인 증가와 더

불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둘째, 현재는 다양한 조직들이 표준화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더 이상 종전의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보듯이 국가나 기간망 통신사업자만이 표준화의 주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자 등이 표준화 주도 업체로서 자신들의 수익을 겨냥하여 표준화에 뛰어드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은 국가나 사회의 이익보다도 자사의 이익 구현을 최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는 이들 업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국제 표준화를 위한 미국내 업체들간 사전 의견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셋째, 표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종전에는 표준의 분량이 적고 내용 파악이 용이 하였으나, 오늘 날에는 각각의 표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분량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MPEG 표준 등 많은 표준들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원인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 및 복잡화, 세계화(Globalization), 이용자 요구 다양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표준화 활동양상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표준 내용의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표준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는 그 표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특정 기술표준에 관련된 구체적인 Parameter 등의 결정 배경 등을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는 알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변화들에 따른 표준화 기본 목적 등도 변해 가고 있는 바, 우선 과거에는 표준화의 주요 목적이 호환성 확보를 통한 편리성 제고였다면 오늘 날에는 오히려 표준화를 국제 시장 확보·선점 및 유지·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국제 다국적 기업들의 표준화 활동행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종전에는 확정된 표준에 따라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했었다면, 오늘 날에는 오히려 시장을 겨냥한 표준화 활동과 기업 연합 등이 시장확보와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표준화의 비전

비전(vision)이란 미래에 대한 구상 즉, 미래상(未來像)이다. 또한 마땅히 도달해야 할 미래의 가치이며 현재보다

더 낮거나 성공적인 바람직한 미래를 기술해 놓은 것이다.

비전은 조직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불어일으켜 그들의 기술과 재능, 자원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게 하고, 조직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며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낸다.

표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 표준화의 미래상인 비전을 제시하고 참여자들간에 공유하는 것은 표준화 활동 참여자에게 활력을 불어일으켜 더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촉발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표준화 활동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일조가 될 것이다. 또한 표준화 비전의 설정과 공유를 통해 최근 자국 디지털방송규격의 국제표준반영에 실패하고, 그 이전에는 비디오재생방식인 VHS/beta 방식간의 표준전쟁에서 실패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했던 일본의 표준화 실패의 전철을 피할 수 있다.

표준화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표준화를 통한 기술강국의 실현과 국가발전의 기여이며, 표준화의 비전은 우리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하여 IT 산업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 간다는 것이 될 것 있다.

한 예로 휴대이동초고속인터넷기술인 WiBro를 국내기술로 개발하고 이를 국제표준(IEEE 802.16e)에 반영함으로써 3조 원의 시장 형성이 예측되고 269만 명의 신규고용창출, 17조 원의 생산유발, 6조 2천억 원의 수출유발 효과와 더불어 7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KISDI 보고서). 또한, 월드 DAB포럼 표준으로 채택된 DMB는 16만 4천 명의 고용창출, 5조 4천억 원의 DMB단말기 내수시장, 14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ETRI 보고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TTA IPv6 PG의 표준화 활동 결과로 2005년 11월에 한국인들을 중심(KT, 삼성, ETRI 등)으로 국내 최초로 IETF 16NG WG(IPv6 over WiBro)을 창설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본 절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의 효율적 추진을 목표로 하여, 우리나라의 표준화 활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즉, 표준화 활동의 비전은 무엇이며,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의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준화 활동의 비전을 논하기 앞서 표준화의 위상과 중요성이 강화된 것에 주목하고 싶다. 앞 절의 표준화 환경 변화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거의 표준화가 상호운용성의 확보를 통한 편리성의 제고가 목적이었다면, 오늘날의 표



준화는 국제 시장 확보·선점 및 유지·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표준화의 위상이 표준화를 위한 표준화에서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가름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업활동으로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화 업무의 위상 강화는 국내 IT업계의 주요 경영자들이 미래의 성장을 위한 주요 요소로 표준화를 들고 있는 것이나, 최근 미국이 '위피(WIFI)', '휴대인터넷', '위치기반 시스템(LBS) 등의 표준화 문제를 통상문제화 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 업무의 위상 제고에 따라 표준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조직내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비전 만들기의 시작은 환경분석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표준화 활동의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의 분석을 통한 SWOT 분석결과는 <표 1-3-1>과 같다.

택, 2006년 상반기에는 ITU-R 표준으로 완료시킬 예정이다. 한편 IT 산업의 광대역화와 컨버전스에 따라 새로운 발전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 5월 IT839 전략을 마련하여 IT 서비스-인프라 제조업(기술)을 연계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IT산업의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분야에 274명의 국제표준화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표준화 전문인력을 매년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IPR 보유 원천기술 부재, 시장규모의 한계, 국내 표준의 국제표준화 미흡(실효성 있는 표준의 부재)과 같은 약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을 상용화하여 CDMA 기술의 종주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국제 CDMA 장비 및 휴대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 것도 사실이지만 원천기술 보유사인 퀄컴사에

<표 1-3-1> 정보통신 표준화의 SWOT 분석(TTA)

| 강점 | 약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통신 표준기술(CDMA)의 상용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 (세계적인 인터넷 인프라) Portable Internet(WiBro), DMB 등 주요기술의 국제표준화 성공 주요 기구별 국제표준화 전문가의 대거 진출 국가적 차원의 IT839 전략 추구 및 관련 표준화로드맵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R 보유 원천기술 부재 시장규모의 한계 국내 표준의 국제표준화 미흡(실효표준의 부재) 보편적 표준화 인식부재로 인한 산·학·연의 불균형적 참여 (산업체 표준화 활동 저조) 국가차원의 일원적 표준화 추진체계 부재와 부조화 |
| 기회요인 | 위협요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시장의 개방에 의한 진출기회 확대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급속한 기술혁신과 융합화 사실표준화기구의 증가에 의한 기업의 선택적인 집중 공식표준화기구간, 공식표준화기구와 사실표준화기구간, 국가표준화기구간의 전략적 협력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화에 따른 기술 및 표준화 경쟁 심화 표준화와 IPR 보호 강화 중국 등 기술후발국의 입지 강화 |

우리나라 표준화 활동의 강점으로는 무엇보다 CDMA라는 새로운 표준을 채택하여 상용화 시킨 최근의 경험과 세계적인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는 통신환경을 들 수 있다. CDMA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표준화 활동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보편화된 세계 1위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환경은 국외 우수 기업들이 새로운 장비와 신규서비스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무대로 한국시장을 선호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휴대이동초고속인터넷기술인 WiBro를 국내고유 기술로 개발하고 IEEE 802.16e 국제표준에 반영하였으며,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국내표준인 T-DMB를 월드 DAB 포럼으로 반영하여 2005년 상반기에 ETSI 표준 채

관련 매출의 5% 이상을 지재권 사용료로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우리의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기에는 표준화 주도를 위한 궁극적인 무기인 우리의 통신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는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다.

기회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세계시장의 개방에 의한 진출기회 확대,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급속한 기술혁신과 융합화, 사실표준화기구의 증가에 의한 기업의 선택적인 집중 등의 요인이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통신시장의 작은 규모는 많은 투자를 전제로 하는 신기술 개발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이제는 국제 시장의 개방에 따라 우수한 기술만 있다면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었고 이에 따

라 국제시장의 수요를 염두에 둔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위협요인의 측면에서 볼 때, 개방화에 따른 기술 및 표준화 경쟁 심화, 표준화와 IPR 보호 강화, 중국 등 기술후발국의 입지 강화 등이 우리의 표준화 활동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술이 뒤쳐질 때 더 이상 표준화 장벽을 통해 국내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국제시장 확보를 위한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우리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외국의 노력이 증대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기술후발국의 위협증대 측면에서, 중국은 표준화의 궁극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시장규모를 배경으로 국제표준화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데, 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중국 자체의 TD-SCDMA 표준 제정을 제기하고 나온 것과 같이 국제 표준화에서 그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 환경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강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환경분석에 기반하여 우리의 표준화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객관적 분석에 기반하되 약점이나 위협요인과 관련하여는 새로운 발상으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발상에 기초하여 우리가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수 있다는 표준화의 비전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우선 원천기술 부재라는 약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와 IT 산업발전에 기반하여 새로운 IT 서비스의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에게 상용화 이전의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초기 상용화 이전의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관련 대용량 장비 및 서비스 규격 제정과정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상용화 경험에 따른 프리미엄을 향유하고 있으며, VDSL 관련 DMT/QAM 방식 선정과정의 예와 같이 자연스럽게 국제표준화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우리가 CDMA 표준 상용화를 처음으로 주도하여 성공한 경험과 이를 통해 얻어진 우리도 새로운 분야의 표준화 활동의 주도를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중인 2.3GHz 휴대인터넷 표준화에 대한 국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져 2004년 6월에 “TTA 휴대인터넷 표준(1단계)”을 완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표준에 사용된 국내 통신업체들의 휴대인터넷 기술이 IEEE 국제표준으로 대거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난 자신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자 가능성인 것이다.

시장규모의 한계라는 약점과 관련하여, 크지 않은 국내 IT시장규모는 우리의 표준화 역량에 근본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즉 우리는 표준화의 근본적인 무기인 시장규모가 작아 국제 표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분명히 우리 자체의 IT 시장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최대규모 시장인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며, 구미의 표준화 주체들이 가질 수 없는 표준수요자의 입장에 설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시장규모를 배경으로 권역 내 표준수요자로서의 입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의 심화나 기술후발국의 입지 강화와 같은 위협요인의 측면에서도,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되며 또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제는 경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주지하고 당당히 경쟁환경을 받아들이야 한다. 기술후발국의 입지강화라는 면에서도 대부분의 기술후진국의 우리와 같은 아시아지역 또는 제3세계권에 소재하는 국가들이며 우리가 이들과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향력을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의 표준화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표준화 환경분석과 새로운 발상에 기초 위에서, 어떻게 우리의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표준화 활동 비전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준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원천기술의 확보.

무엇보다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CDMA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원천기술 없이는 표준화를 통한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간의 경험과 자신감을 기반으로 2.3GHz 휴대인터넷 등의 신성장 동력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표준화 추진.



우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효율적인 표준화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부는 2004년에 IT 서비스-인프라-제조업체를 연계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Digital life 를 본격화하는 IT 산업의 발전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 8대 서비스(WiBro,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W-CDMA, 지상파 DTV, VoIP), 3대 인프라(BcN, USN, IPv6), 9대 신성장동력(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 PC,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텔레매틱스, 지능형로봇)이라는 IT839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IT839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IT839 전략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2004년도부터 TTA 표준화위원회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되어 보다 더 선택적·집중적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 등은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국제표준 선도 분야나 조기 상용화 대상분야의 과제를 중심으로 선택적 집중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호환성 확보 및 공공 표준화 분야에서의 노력도 지속하여야 한다.

셋째, 표준화 관련 인력의 육성이다.

표준은 기술에 기반하지만,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인력 육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 인력뿐 아니라 언어능력 및 표준화의 절차지식을 구비한 표준화 전문인력의 양성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의 일환으로 TTA에서는 2000년부터 국내개발기술의 국제표준에 조기 반영하고 국제표준화 흐름을 신속하게

국내에 전파하기 위해 IT 신성장 동력분야 및 기술분야별 274명(2005년 기준)의 국제표준화전문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R, JTC1, 포럼, APT 등의 총 131개 의식에 의장, 부의장, 라포치, 에디터 등의 전문가를 진출시켜 국내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표 1-3-2〉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등 진출 현황 (2005년 12월) | |
|--|------|
| 국제표준화기구 | 의석 수 |
| ITU-T | 53개 |
| ITU-R | 5개 |
| JTC1(ISO, IEC 포함) | 24개 |
| 포럼(3GPP 포함) | 24개 |
| APT(ASTAP 등 포함) | 25개 |

넷째, 국제표준화 협력활동 강화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시장규모의 한계라는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재한 아시아지역이라는 최대규모 시장의 후광을 활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지역 소재 국가들과의 협력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2002년 TTA 주도로 결성되어 운영중인 “한·중·일 IT표준화협력회의”에서는 4G 이동통신, 차세대통합망(BcN)에 대한 공동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통합망에 대한 표준화협력을 위해 한국 KT, SKT, 일본 NTT, KDDI, 중국의 차이나텔레콤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참가하여 2005년까지 로드맵을 만들고 2010년까지 유무선 네트워크,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 QoS, 보안 등 표준화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하고 지속적으로 표준화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APT표준화프로그램(ASTAP) 활동도 주목된다. 2004년 10월 개최된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WTSA'04)에서는 ASTAP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지역 공동 기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를 표준화 절차와 연 구반 재편에 반영하는 결과가 있었다. 의장단 진출에 있어서도 사전 조율 및 협력을 통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의장단에 대거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초고속인터넷과 NGN 분야의 경쟁력과 더불어 대규모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표준화 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표준화가 사실상

몇몇 주요 표준화 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세계적인 표준화 주도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표준화 협력 프로그램인 GTSC/GRSC (GSC/RAST의 후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인 표준화 리더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하여 IT 산업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 간다는 것이 우리의 표준화 비전이다. 이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

은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표준화 비전의 달성이 어려운 것 이상으로 비전 달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도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비전은 우리의 장점과 기회요인을 십분 활용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요인에 철저히 대비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그간의 경험과 자신감을 기반으로 표준화 활동을 통해 IT 산업진흥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라 할 것이다.